

좋은 IR의 가치

이 자료는 지난 2016년 11월 IR매거진의 기사 내용을 번역·정리하여 게재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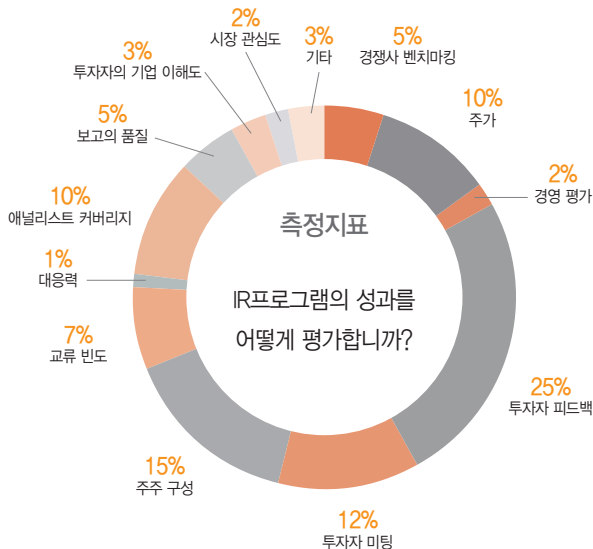
〈편집자註〉

IR프로그램의 성공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많은 IR부서들이 부족한 예산으로 IR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만약 성공 여부를 측정할 수 있다면 어느 분야에서 잘하고 있는지,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회사의 IR전략이 효과적인지 측정하고 어느 부분이 통용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북미 회사는 어떻게 IR을 측정할까? 스몰캡은 투자자들의 피드백 방법 중 어느 부분에 가장 의지할까? 섹터별로 IR평가기법이 다를까? IR매거진은 이들에 대해 조사했다.

가장 먼저 조사해야 할 것은 IR평가시 비교할만한 IR평가모범사례를 분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투자자의 대응력은 그들과의 관계 유지에는 중요한 사항이지만 IR프로그램 평가의 고려사항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IR을 평가할 때 이 측정 항목을 사용하는 회사는 1%에 불과하다. 경영 평가, 회사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도 및 경쟁사 벤치마킹까지 IR프로그램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회사도 간혹 있다.

한편 IR 측정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5대 지표는 투자자 피드백, 주주 구성, 투자자 미팅, 애널리스트 커버리지 및 주가이다.



실제로 기업들은 다양한 측정 방법을 동시에 사용한다. 일부 측정법은 상황에 따라 그 선호도가 떨어지거나 의도한 것과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IR매거진이 과거에 4개 대륙에 걸쳐 조사한 투자자 인식 연구(Investors Perception study)에서도 다양한 접근법을 사용했다. 체계적으로 IR프로그램을 측정하는 기업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기업도 존재한다. 상황에 맞추어 측정법을 채택하거나 투자자가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견해를 밝힐 수 있도록 자유로운 방식을 고수하는 것이다.

IR활동 평가는 IRO에게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분야를 알려주는 것 외에 개인적으로도 더 나은 성과급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IR매거진은 연구의 일환으로 성과급을 받는 IRO의 수를 조사했다. 거의 90%(IRO의 79%와 IR부서장의 94%)가 성과에 따라 보너스를 받는데, 이 평가는 회사, 팀 또는 개인의 성과를 기반으로 한다.

회사 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일(46%)이며 개인성과 팀 성과를 모두 고려하는 기업은 18%로 그 비율이 낮아진다.

TD Bank의 전 IR책임자인 Rudy Sankovic는 IR프로그램을 측정하기 위한 '균형성과표'를 구성하는 10가지 요소를 밝혀냈다. 이 접근법은 IR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여 점수로 표시한다.

이는 팀이 수행하는 활동의 범위, 비용 대비 가치 측면에서의 팀 효율성, 10만주 이상의 주식을 사는 새로운 주주의 수, 설문 조사를 기반으로 한 내부 비즈니스 파트너의 견해나 CFO의 투자자 특별 조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의 총합으로 이루어진 이 균형성과표는 토론토 TD BANK 본사의 효율성을 평가뿐만 아니라 Sankovic 자신의 업무 평가에도 사용된다.

그 외에도...


캐나다의 TD BANK와 같은 일부 회사는 IR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는 반면 몇몇 다른 업체는 보다 즉흥적인 방식을 취한다. 그러나 가장 일반적인 공식은 전통적인 브로커 의견에서부터 주가 비교까지 다양한 방법을 선택한다.

IR매거진의 투자자 인식 조사(2015)에서 유니레버의 Andrew Stephen과 네슬레의 Steffen Kindler는 투자자 인식 연구 자체에 의존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투자자 혹은 브로커의 피드백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몇 년 동안 대규모 투자자 인식 연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Stephen은 덧붙였다. 그 대신에 유니레버의 기업 브로커는 20명 정도의 응답자(주주 및 비주주)와 대화를 한다. 이를 통해 기업 전략과 실적, IR서비스의 기준과 성과를 비롯한 다양한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

Kindler는 네슬레가 과거에는 공식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에는 투자자, 애널리스트와의 로드쇼가 끝난 뒤 그들의 기대에 얼마나 부합했는가에 대한 피드백을 구하고 있다. “상당히 좋은 의견을 얻고 있다. 피드백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투자자 역시 급진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이것은 서서히 변형되는 진화의 문제이지 급진적으로 뒤바뀌는 혁명이 아니다.”라고 Kindler는 덧붙였다.

경쟁사 벤치마킹은 또 다른 예로 현재 기업의 5%가 IR측정에 경쟁사 평가를 사용한다고 보고했다. 기업의 12%가 경쟁사 평가를 사용했던 2012년에 비해서는 그 수가 줄었지만, IR평가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완전히 유행에 뒤쳐진 것은 아니다. 독일의 거대 화학 회사 BASF의 IR책임자인 Magdalena Moll은 경쟁사 벤치마킹을 '결정적인' 것으로 묘사한다. BASF는 외부 기관을 고용하여 Buy-side와 Sell-side의 인터뷰를 포함한 글로벌 인식 연구를 매년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타겟을 설정하고 그 해 개최해야 할 미팅의 수를 설정하고 있다. 

코넥스 상장/공시/업무규정 및 코스닥 상장규정 개정 주요내용

개요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찬우)는 「코넥스시장의 지속성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17.4.25 금융위)」에 따라 코넥스 시장 상장·공시·업무규정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17.6.14)하고, 17.6.26(월)부터 시행

- 코넥스시장 기술특례상장제도, 지정자문인제도 및 코넥스기업의 코스닥 신속이전상장(Fast Track)제도를 개선하고, 코스닥시장의 상장폐지 사유 명확화 등 상장관리 및 퇴출제도를 정비

주요 개정내용

1. 코넥스 기술특례상장제도 개선

- 기술특례상장 활용도 제고를 위해 기술특례상장요건 중 지정기관투자자의 투자유치 요건(투자규모, 보유기간)을 완화.

구분	개선 내용
투자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지분율이 20% 이상일 것 • (개선) 지분율이 10% 또는 투자금액이 30억원 이상일 것
보유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1년 이상 → (개선) 6개월 이상

- 지정기관투자자 자격요건 중 중소기업 증권 투자실적 요건을 현행의 1/2 수준으로 완화 (300억원 → 150억원 이상)
 - ※ 자격 완화를 통해 지정기관투자자 수를 현행 20사에서 40~50사로 확대 추진
- 지정기관투자자에 대한 정기심사제도 정비(심사시기 및 심사절차 개선)
 - ※ 자격심사시기 : (현행) 매년 3월 → (개선) 매년 4월
 - 자격심사절차 : (현행) 조치 여부와 무관하게 상장공시위원회 개최 및 심의 (개선)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만 상장공시위원회 개최 및 심의